

레비나스의 윤리관에서 본 특수교사의 윤리성 제고*

김 성 애**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요 약》

특수교육 분야의 가장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교육성과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및 방법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교육성과를 위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실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교사의 학습자를 보는 관과 윤리적인 측면이 학습자의 교육성과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레비나스 윤리관이 탐색되고 교사의 윤리관이 제안된다. 첫째, 특수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윤리관의 형성을 위해 레비나스 윤리학의 성립 배경과 윤리관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레비나스의 윤리학이 특수교사의 윤리성 제고에 주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레비나스가 주장한 윤리철학이 특수교사의 윤리성 확보의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킬 계기로 역할 할 것을 강조한다.

주제어 : 레비나스, 현상학, 윤리학, 타자이론, 향유적 자아, 윤리적 자아, 해체주의

1. 연구의 의의 및 문제

특수교육 분야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그것이 학습이든 행동이든,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부분일 것이다. 그들의 교육성과에 관심이 큰 이유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궁극적인 교육목표라 할 수 있는 '독립된 성인생활과 삶의 질 향유'를 위한 노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 때문이든 외적인 다른 요인으로든 간에 그의 학습효과(긍정적인 행동변화를 포함하여)면에서 그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그 교육성과를 위한 부단한 해결노력은 특수교육의 태동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인지)발달주의, 행동주의, 기능주의, 생태학, 인본주의 등의 철학에 근거를 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분리교육에서 메인스트리밍, 인클루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수교육전달체제의 활용과 특수

* 본 연구는 2004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것임.

** 교신저자(sakim@daegu.ac.kr)

교육 대상자의 저조한 교육성과를 극복할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Transition’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특수교육계는 학습자에게 지금까지 개발·적용된 우수한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포함)과 혁신적인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의 활용을 위한 연구와 적용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게 연구·실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교육성과는 거기에 비례하는 만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특수교육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낼 수도 없고 ‘이것이다’ 하고 단적으로 결론지을 수도 없지만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학습자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고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특수교육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0여년이 넘게 오랜 기간 특수교사 경험이 있는 논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쟁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 있어서 어떤 ‘간과된 부분’을 본다. 환언하면, 그 노력들 중에 ‘무엇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수교육의 성과를 위한 노력을 교육과정 개발·운영이나 교육방법 실천 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시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교육내용이나 방법 이전에 교사의 ‘교육관’ 내지는 학습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점점의 필요성이 먼저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김성애(2005)는 자신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교사의 교육패러다임과 학습자에 대한 태도 방향이 그들의 교육성과 높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학습자를 객관적이고 실증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그를 장애의 원인을 가진 병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비정상적인 개념에서 그의 존재 가치를 절하한다. 그것은 오히려 그 학습자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그와의 의미 있는 소통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학습자가 훌륭한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의 쟁점이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학습자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법 면에서 그러한 관심은 수없는 논문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보였다. 이제 그 관심을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 그를 보는 ‘관’이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 속으로 옮겨보고자 한다. 특히, 많은 경우 완전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우리의 특수교육이 일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질 진데, 그 안에 있는 장애를 가진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윤리적 측면이 학습자의 교육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자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성애(2005)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참여 의욕을 줄게 하고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로 인한 문제행동 등의 발생이 가능하게 하며, 결국 장애를 가진 학습자가 교육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론과 현상학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 연구에서 특히,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학습 가능자’로 보도록 하는데서 강조되었고 그것이 교사로 하여금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가능성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능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긍정적인 힘이 실렸

으나, 구성주의가 가진 인간 이해의 한계적 특성이 비판적으로 진술되었다.

그런데, 논자는 최근에 레비나스 윤리학을 접하면서 타자에 대한 인정을 위한 레비나스의 비판 속에서 구성주의나 현상학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성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절대성의 인정은 인간의 자아중심적인 사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타자, 특히 가난하고 약한 타자는 인간의 자아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절대적 명령이 담긴 호소의 ‘현현’이며, 이것은 수용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윤리성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레비나스의 철학은 논자로 하여금 김성애(2004, 2005)의 특수교사의 장애이해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고, 더 나아가 학습자의 교육성고를 올리기 위한 보다 깊은 내용을 담론할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다.

논자의 이러한 연구 동기는 특수교육에서는 특히 교사의 윤리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학습자의 성취와 학업성고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처음 본 장애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태도나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장애 학습자의 교육을 실패로 만들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으로 레비나스가 한계성을 느끼는 현상학적 접근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인 절대 타자윤리의 입장에서 학습자를 이해하는 시각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습자의 교육성고를 위해 교사의 타자윤리적 태도가 진정 중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레비나스의 윤리철학이 교사의 윤리관을 형성시킴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매우 뜻 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 한다:

첫째, 특수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윤리관의 형성을 위해 레비나스 윤리학의 성립 배경과 윤리관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레비나스의 윤리학이 특수교사의 윤리성 제고에 주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상기된 연구문제는 레비나스 윤리학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연구들의 수집, 내용의 탐색과 분석, 그리고 특수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윤리관의 새로운 입장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II. 레비나스 윤리철학

레비나스는 윤리가, 특히 타자의 타자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윤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적 고민인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다움에 대한 완성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한다. 논자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생각이 특수교사가 가져야 할 타자 윤리의 당위성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의 ‘타자에 대한 개념’과 ‘타자윤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레비나스 윤리철학의 등장과 기저

레비나스는 훗설의 현상학에서 출발하여 그 만의 독특한 ‘타자윤리’를 확립해 현대 철학의 큰 획을 그은 자라고 할 수 있다. 논자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연구하는 많은 논문들을 접하면서 레비나스가 주창한 윤리학의 발단이 근대철학의 전체성과 이성중심주의가 거부에서, 또한 자아 중심적인 사고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생겨났다고 본다. 그러면 이성 중심 혹은 자아 중심적 철학이 왜 레비나스에 의해 비판되어야만 했는가.

우리나라 레비나스 연구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강영안은 “... 근대성의 문화는 계몽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 인간을 자연과 동물로부터 분리하여 자유와 자율의 주체로 확립하고 주변세계를 비신화화 혹은 ‘탈미술화(베버)’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강영안, 1990, 244).”고 언급하면서 현대철학의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메를로뵈뛰,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현상학자들과 라캉, 푸코, 데리다 등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전통적인 주체성 이념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반 데카르트적 사고라고 규정하였다(강영안, 1990).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인간의 자아나 주체는 세계의 근원이거나 종국적인 존재가 아니라 파생적이라는 것이다(강영안, 1990). 즉, 그것은 인간의 주체가 부정되고 그로부터 사유와 인식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가 없다(Scharlemann, R. P.(ed., 1990); 민경석, 1997, 재인용, 3.)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가 근원적 존재가 아니고 파생적 존재라는 것은 테일러가 말하는 신은 죽었고 자아는 실종되며, 차이성을 억압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현존과 동일성의 확립의 시도는 실패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강영안, 1990; 민경석, 1997).

앞의 주장을 레비나스의 윤리학과 연관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자. 지금까지의 서구의 철학은 총체성을 그 역사적 성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칸트와 그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율적 의지가 진정 도덕적인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칸트는 자기결정적인 것, 자율성, 자유, 선의지, 의무감에서 기인한 행위를 윤리학적인 것으로 보아, 자유와 자율성을 도덕성의 핵심원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김연숙, 2000a).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이 가지는 이념은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지금까지의 서구 철학이 가진 전체성과 이성중심적 사고들이 타자의 입장에서 많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총체성은 서구철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 철학은 모든 경험을 보편적인 합계에 의해 전체성으로 환원하

게 하며 의식이 세계를 포괄하게 된다(김연숙, 1997)는 주장을 담고 있다. 레비나스는 훗설과 하이데거의 철학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서양 철학이 근본적으로 자아중심적인 전쟁의 철학, 전체주의적인 철학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전쟁과 전체주의에 관한 철학은 모두 인간의 인격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종속시키고, 전체체계 속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종국에는 제거되고 만다. 레비나스는 이것이 전체성을 우선하여 인간의 절대적 및 인격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철학에서 나온다(강영안, 1990)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가지는 도덕성은 전체성과 그것의 위험을 깊이 깨닫는 데서 온다고 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그들이 전체화되거나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face-to-face) 함께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Cohen, R. A., 1985; 김연숙, 1997, 재인용, 397). 이러한 레비나스의 생각은 료타르(Lyotard, 1984)가 전체와의 전쟁을 복돋우고 차별성을 활성화하자는 내용(민경석, 1997, 재인용, 4)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탈근대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이 나오게 된 또 다른 배경적 차원으로서 본 논자가 이해한 것은 자아 중심적 철학에 대한 비판이다. 짜르트르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인간관계를 적대적 관계에 놓고 있는데, 레비나스는 서구의 철학이 일원론의 존재론적 경향과 유아론으로 일관하여 모든 자아가 자기 외의 것들에 대해 자기화하고 동일화하는 작업이 타자의 존재 의미를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김연숙, 2000a). 특히, 그는 모든 진리나 가치들이 인간의 자율적인 주체로부터의 선행적 활동으로 귀결되는 것은 타자의 '다름'을 경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위험성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레비나스가 인간의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적어도 칸트나 훗설의 '초월적 주체성'이 인간의 절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정면으로 나서고 있다.

훗설이 인식하는 타자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지각하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유추하는 지식으로 이해되는 존재다. 타인은 나와 구별되는 신체 속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이다. 레비나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타자론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전체성의 철학이라고 결론짓는다(강영안, 1990). 그것은 레비나스에게는 인간의 주체, 현존재는 선을 실천하는 존재일 때만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타자와의 자발적인 관계를 통하여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그의 '타자성의 인정을 통한 주체성의 확립' 때문일 것이다. 이 주체성은 '타자를 위한 존재', '대리' 혹은 '볼모'로서 존재하고, 타자를 위해 짐을 지는 주체인 책임적 주체라는 것으로 강조된다(강영안, 1990). 그러므로 자아와 타자는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타자를 자아 안으로 동화 내지는 통합하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타자는 어떤 이유에서도 자아 안으로 통합할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니고 있다(김연숙, 2000a, 128).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배경 사이에 레비나스는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의식은 인간 외부에 있는 다른 것을 자신의 의식 안에서 포괄하려고 하는

자기 충족의 내재성이며, 스스로 자신을 구성하는 전체성으로 보고 있다. 즉, 타인은 나의 인식의 대상으로서, 내가 나를 기획하고 서기위해 필요한 삶의 세계이므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실현이나 확립에 기여하는 것 뿐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타자가 자아로 환원되는 것이다(강영안, 1990).

그러므로 전체성의 철학은 무한한 자기긍정 혹은 자기성에 대한 충동의 표현이며 결국 이해하고 파악하고 손에 집어넣는, 즉 타자의 다양성을 동일자 곧 자기의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지배의 한 방식을 취하는, 자아에 우위성을 두는 자아론이다(강영안, 1990). 레비나스는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타자를 타자로서 인정하여 절대적이고 참된 신의 경지인 무한의 이념이 자리할 공간을 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타자가 가진 타자성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의 초월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초월성은 형이상학적인 것, 즉 나 자신의 실체로부터 무한한 거리를 지닌 실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김연숙, 1997)는 것이다. “형이상학에 있어서 존재는 그것이 흡수할 수 없는 것, 인식론적 의미에서 불가해한 것과의 관계에 있다. 무한성의 이념을 가지는 형식적 구조의 능동적인 얼굴은 담론이며, 윤리적 관계로 특수화된(Furrow, D., 146-148; 김연숙, 1997, 재인용, 398).”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 근거인 이성중심주의(이성, 논리, 관념, 개념 등등)에 대해 그 어떤 해체주의자들이 비판한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진지하게 비판한(민경석, 1997) 이유는, 타자성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윤리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타자와의 윤리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의도한다. 여기서의 무한성은 바로 타자와 신의 절대적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진다(민경석, 1997).

그러므로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인간의 전체성의 강조와 그로인한 자아와 주체성이 중심이 되어 사고되던 부분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자아로 환원할 수 없다는, 자아와 타자의 분리, 타자의 절대성의 인정을 강조한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타자를 착취하지 않고(김연숙, 2001),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파괴당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확보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논자가 레비나스의 윤리관이 성립된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체성과 이성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해 오던 지금까지의 근대철학은 결국, 인간의 자아중심,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치의 제일의 자리에 두게 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아와는 다른 타자성을 빼앗고 인간성에 상처를 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각성은 결국 타자의 개념을 자아에서 분리하는, 자아 중심적인 타자의 인식에서 자아와 무관한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되어 타자의 타자다움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의식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이것이 곧, 인간간의 관계를 ‘적’으로 규정하거나, 주체인 나의 ‘타인 것밖음’의 합리화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오명적인 해석이나 결론이 가지는 책임 회피성의 여지를 주는 위험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 레비나스 윤리철학의 인간관

인간이란 누구이며, 타자는 무엇인가? 주체인 인간은 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타자의 개념이 레비나스에게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것이 본 논제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정의하면서 언제나 이성의 우대와 감성의 홀대가 당연시 되도록 설명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신과 교통하는 길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표지로 여겼다. 특히 감정에 의해 이성이 굴복 당하는 것은 존재론적 위계질서의 파괴이며 윤리학적인 죄로 치부되기도 하였다(김연숙, 2000b).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언제나 이성에 눌러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던 감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인간이 선협적이고 합리적인 자아로만 이해될 때는 일방적인 이성적 사유작용이 가져오는 에고(ego)의 총체적 과정에서 문제를 낳게 되며, 배고픔, 고통, 기쁨 속에서 나오는 존재 방식을 모르게 된다고 한다(김연숙, 2000b).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몸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몸으로 자신의 세계 안에서 거주하고 노동하며, 호흡하고 영양을 취하며, 그 세계를 인식해 감을 통하여 자신을 타자와 구별하는 자아의 내면성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세계 속에 있는 타자를 자기화 시키는 전체성이나 소유욕을 발휘하기도 한다(김연숙, 2000b). 이것을 레비나스는 ‘향유적 자아’라고 한다. 즉 인간은 ‘향유적 자아’와 ‘윤리적 자아’를 모두 가진 존재로 나타낼 수 있는데, 향유하는 자아는 이기적이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가지는데 비해, 윤리적 자아는 세계 속의 타자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저항하고 타자의 존재 사실과 무한이념을 현현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수용하면서 이기성과 소유욕을 이타심과 탈소유로 향하게 한다. 인간의 윤리성은 바로 이러한 윤리적 자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향유적 자아를 윤리적 자아로 옮아가는, 만들어지는 존재, 이기적인 속성에서부터 이타적인 성품으로 옮겨가는 존재(김연숙, 2000b)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레비나스는 여기서 타자의 개념을 바로 인간이 향유적이고 이기적이며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자아 중심적 사고로 타인을 자기 속으로 끌어 들여 동일적 자아를 만들려는 이기적 자아를 움직여서 “현현”의 속성을 가진 외재성에 대해 주체가 윤리적 자아를 가지도록 하는 존재로 두고 있다고 하겠다.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모나 그의 심리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타자성) 때문이다. 그는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이다. 하지만 나는 부자이고 강자이다...(레비나스, 1979, 강영안 역, 1997, 101).” 타자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그 인간다운은 타자를

자기와 절대로 구별하여 타자성을 동일성의 대상으로 두지 않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할 수 있다. 윤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강자인 내가 약자인 타자를 향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논리와 함께 구체화된다.

타자는 그의 얼굴의 현현 가운데서 나오는 전혀 다른 자아로서 나타난다. 타자는 지향적 대상(호설)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며 호소하는 존재이다. 나와 너의 상호간의 사랑 안에서 인식하는 타자(부버)도 완전히 나와 구별된 인정속에서의 타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레비나스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서로의 속으로 녹아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와 선의 관계요 책임의 관계라는 것이다. 타자는 내 앞에 전혀 가면을 쓰지 않은 얼굴로 나타난다. 이것은 타자의 존재를 그가 누구이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관용하며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 타자의 현현은 바로 초월적 차원에서 온 신의 모습이요, 목소리이다(강영안, 1990). “얼굴은 나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나를 심판한다.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존재는 높음의 차원, 초월의 차원에서 온다(강영안, 1990, 재인용, 254).” 레비나스는 자아와 타자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타자를 자아 속으로 환원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타자와의 사회적,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만 신이 우리에게 현현하며 타자와의 관계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강영안, 1990, 256).”

3. 레비나스의 타자윤리

타자윤리는 인간이 우주의 주인으로 여김을 받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왔던 자아가 관심의 중심에 있던 것에서 타자에게로 옮기게 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인간간의 관계의 가장 주요한 전제가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 형성에 둔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에서 타인의 입장, 특히 타인의 요청과 호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김연숙, 2000a)으로의 전환, 나아가 그 타자의 현현에서 나오는 호소를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응답하라는 나에게 대한 명령으로 인식하는 책임윤리(김연숙, 2000b)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레비나스는 인간은 쾌락을 통해 타인과 분리되어 나 자신으로 돌아가 내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만들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를 위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며 타인과 함께 노동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존재라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내재성, 즉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내용으로 삼는 것으로 타자의 타자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왜냐하면 이 자아는 ‘소유와 쾌락의 자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자아일 뿐으로, 이 자아는 윤리보다는 노동을, 타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아의 욕구를 선행하기(강영안, 1990) 때문이다.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가 타자를 동일적 자아로 환원하지 않고 온전히 그의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레비나스는 그것은 이기적 자아로부터 윤리적 자아로 전환

할 수 있는 윤리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한 전환은 ‘동일자안의 타자’라는 주체성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타자의 요청과 호소에 응답하는 만큼의 크기로 자기 안에 타자가 자리하며 타자에 대한 책임도 느끼는 윤리적 자아를 말한다(김연숙, 2001).

이렇게 타자의 타자성을 나와 구별하여 절대적인 낯선 자로 둘 수 있으면서도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타자의 얼굴이 내게 구체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쾌락의 주체성인 자아는 스스로 자기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벗어나서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난에 시달리는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가 내 앞에 얼굴로 나타나 호소해 올 때, 나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물리치고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다. 이것은 타자의 얼굴에 나의 이기심에 대한 일종의 꾸짖음이 나타나 내가 거기에 대한 복종과 응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나의 타자에 대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레비나스는 강조한다.) 이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내면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초월적 주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강영안, 1990). “...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도덕적 양심은 자아의 자기 현존성을 비판하고 현존성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의 시초가 아닌가? 만일 모든 확실성이 배후로 돌아가 근본 뿌리를 찾는 것이 철학의 본령이라면 만일 철학이 비판으로 살아 있다면 타자의 얼굴은 철학의 시작 자체이다’(강영안, 1990, 재인용, 263).”

레비나스는 인간을 목적 존재로 여기고 타자를 더 이상 관념론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몸으로 타자를 체험하려고 한다(김연숙, 2001). 그의 배고픔을, 부족을, 욕구를 인식하는 것은 이성이나 관념이 아니라 감정, 즉 몸이라는 것이다. 감성이 향유적 자아로 이기성을 발현하지 않고 타자의 입장과 고유성을 자기와 구별하여 다르게 인정하도록 전환하는 것은 바로 타자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알고 베푸는 것(김연숙, 2001)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성은 ‘다른 이의 필요에, 즉 그의 불운함과 잘못을 배려함’으로써, 주는 것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주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로부터 찢어내는 것일 때만 의미를 가진다. 나를 희생하면서 나로부터 찢어낸 것은 향유의 특징으로 자기 안에서 만족해 있는 존재로부터, 즉 자신의 입으로부터 빵을 넘겨주는 존재의 경우를 의미한다. 타자를 위한 존재는 단지 피와 살의 존재들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타자적인 것은 주체에 저항하고, 고통을 통해 내면성의 주체에 영향을 준다. 감정, 몸은 자기 안에 만족해 있는 향유이자 타자에 대한 보여 짐으로써 상처 입을 가능성이자 타자를 위한 존재의 조건이다(김연숙, 2001, 재인용, 280.)”

위의 인용문을 다시 새겨보자. 인간의 감성은 향유와 윤리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향유성의 감성은 자기 안의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나의 배고픔을 채우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나를 위한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 그러한 ‘채움’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몸으로 향유하고 즐긴다. 반면에 윤리성은 타자의 부족성과 불운함을 배려하고 호소하는 타자로부터의 욕구를 알아차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욕구를 뒤로 젖히고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찢어내어 타자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타자에게로 돌리는 행위이다. 타자의 현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다. 타자를 위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것을 ‘내 밥그릇을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것’, ‘햇빛은 타자에게 나만의 안락한 거주 공간을 내어 주는 것’, ‘나의 지갑을 여는 것’이며, 이것은 직접적인 나의 신체성인 감성이 타자에게 선택받고 지명되는 존재로서 윤리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역설한다. 타자의 호소를 냉정히도 초연히도 외면하지 못하고 타자에게 눈을 돌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자를 레비나스는 에고(ego)와 구별되는 윤리적 자아라고 칭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는 여기에 근거한다고 말한다(김연숙, 2001). “...아무도 자신의 희생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어지는 사람, 타자에게 불리어지고 지명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영향 받게 되는 수동성으로 나타난다. 타자에게 지명되는 수동성에서 타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타자를 대신하여 고통 받는 것이고 타자를 위해 희생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레비나스는 이를 대속, 대리로 설명한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적 자아의 책임 것으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감수함, 타자의 가까움의 극치라 볼 수 있다(김연숙, 2001, 283).”

인간의 존재는 얼굴에 나타나 있다. 개체의 존재도 타자의 존재도 얼굴에 있다. 그 존재는 자아의 환원으로는 인식될 수 없는 존재이다. 레비나스는 얼굴을 가진 이 존재와의 만남을 일깨우는 윤리학을 강조하여 이성 중심의 관념 윤리학과 구별한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타자와의 관계의 윤리학이다. 절대적인 타자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타자의 나와 구별에서 오는 절대경험을 받아들인다. 레비나스는 그 절대경험을 타자의 타자성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타자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현’의 사건을 의미한다(강영안, 1990). “... 레비나스에 의하면 얼굴로 나타나는 타자의 현현은 세계 안에 주어진 대상의 현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상은 그것이 나타나는 맥락과 지평을 통해 이해되고 파악될 수 있지만, 타자의 현현은 맥락과 지평을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얼굴의 현현에 직면하는 ‘절대경험’은 드러냄이 아니라 얼굴 자체가 스스로 나타남이다. ...(중략)...레비나스는 훗설이 ‘데카르트의 성찰’의 다섯 번째 성찰에서 타자 경험의 구성을 사물구성과 거의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을 비판한다. 훗설에 따르면 타자 경험의 구성은 세 단계를 거친다. 나는 타인을 먼저 그의 육체를 통해 마치 다른 사물을 지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각한다. 그 다음 살아 움직이는 나의 신체에 타인의 육체를 연상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타인의 육체도 나와 마찬가지로의 신체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몸이 의식의 주체임과 타자도 나와 마찬가지로의 다른 자아임을 지각한다. 타자의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대상 존재의 존재 구성과 인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론에 불과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결코 드러내지 못한다.(강영안, 1990, 252).”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인간 가치의 최고로 여기는 자아중심적인 인간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인간이 가진 윤리성의 실천을 강조한다.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자아와 윤리적인 자아가 있으며, 타자윤리는 바로 윤리적 자아로 인해 실천가능하다. 타자윤리는 자아의 환원으로 타자를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타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며, 인간이 자신의 자아중심적인 이기성으로부터 자아와 구별되는 타인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전환에서 시작된다. 타자윤리는 타자의 갈구와 호소를 나의 안주와 거주의 문을 열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III. 레비나스 윤리관에서 본 특수교사의 윤리성 제고

교사의 교육패러다임과 학습자에 대한 태도는 이성중심에서 나온 판단의 결과인가 아니면 학습자를 타자로 인정하는 그의 감성적 결론의 열매인가. 교사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체험을 통해 학습자를 이해하는가 아니면 타자의 철저한 인정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적용 하는가. 학습자의 다양한 (소위 ‘부적응적’) 행동이나 표현에서 교사는 학습자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규정 하는가 아니면 학습자를 ‘호소하는 자’로 알아채고 그의 내용에 귀 기울여 응답 하려고 하는가. 레비나스 윤리철학은 논자가 던진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패러다임 차원의 ‘현재의’ 태도를 진지하게 제고하게 한다. 그러한 제고의 과정을 통해 정리된,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교사가 장애를 가진 학습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교육의 성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할 열쇠일 것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교사에게 있어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이 주는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보편성을 근거한 판단이나 편견이 더 이상 그 당사자들을 상처내지 못하게 하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타자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 표현을 하나의 호소로 받아들여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영역 안에 있는 전문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그들을 주류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의 당위성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이고 표준 지향적인 태도와 실증주의 중심의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을 택하여 왔다. 그것은 교사가 장애를 가진 인간의 ‘존재다움’을 이성을 가진 주체성을 기준으로 찾도록 하고, 장애를 교사 개인의 ‘전체성’의 범주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자인 교사에게로 환원시킴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가 그러한 교육적 패러다임에 억류되어 자신의 존재를 맘

껏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개인 및 사회의 오해 내지는 편견에 잡히게 할 수 있다. 그러한 편견이나 오해는 학습자의 일생을 수동적이고 스트레스에 싸이게 하여 자기실현과 발견은 물론이고 긍정적이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자기를 만들어 나갈 여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하겠다. 게다가 학습자가 교사나 다른 '이성'이 있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호소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많은 경우 문제행동이나 무의미 행동으로 곡해되고 오해되는 상황이 비일비재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논자는 주체자와 타자의 개념 속에서 특수교사가 레비나스의 윤리관을 가진다는 것이 그의 교육활동에, 장애를 가진 학습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는 여러 가지 단서를 본다. 레비나스 윤리학은 특수교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온전히 나와 다른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게 하고, 각종 모양으로 터져 나오는 그들의 호소에 진정으로 관심 있게 귀 기울이도록 하여, 궁극에는 교사 자신이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학습이나 행동의 (소위) '문제' 해결 가능성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새로운 태도의 패러다임을 가지게 할 것이다.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인정은 우선 교사의 지식과 경험, 즉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타자를 이해하려는 것을 중지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타자에게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전문성을 통한 설부른 판단을 하지 않게 하고 타자인 학습자를 신중하게 살피게 한다. 또한 타자가 가진 다양한 호소 담긴 표현들을 존중히 여겨 그의 요구를 살피고 신중히 충족시킨다.

결국,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해체될 자아를 윤리성의 활성화로 주체성을 되찾게 하는 데 그 업적이 있다고 보고, 타자윤리가 특수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교사가 자신의 인간성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학습자에게로 돌렸을 때, 학습자의 호소는 받아들여지고 그로인한 학습자의 자발성과 발달 욕구가 장려되어 학습에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결론적인 의미를 얻기 위해, 논자는 레비나스 윤리관을 통해 특수교사가 가질 학습자에 대한 새로운 태도, 즉 새로운 윤리관을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정의를 재구성 한다.

교육상황에서 특수교사가 자신의 전체성 속에서 타자인 장애 학습자를 인식하고 자아 동일적인 환원을 시도하는 것은 학습자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의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는 데에도 커다란 문제로 존재할 수 있다. 레비나스의 말을 빌면, 전체성의 철학은 무한한 자기긍정이요 자기성에 대한 충동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단순히 특수교사 자신의 자기긍정과 자기의 이기적인 충동성의 표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체성의 철학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권력의 주체로서의 자아에 그 우위성이 있다는 것으로, 자아중심적인 특수교사는 교실에서 권력의 주체로서 학습자인 타자의 다양성과 타자성을 교사 자신의 동일성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소위) '지배자의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진정, 성공

하는 좋은 교사는 학습자를 타자로서 윤리적으로 인정하고 그 학습자를 참되고 무한한 이념의 공간 속에 자리를 내어주는 열려있는 마음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이다.

타자성은 타자가 타자임을, 자아적 동일시나 자아로의 환원 속에서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진 학습자는 교사의 체험이나 전문성 속에 환원되어 인식되는 존재가 아니다. 타자는 나의 인식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되어 삼아지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앞에 그저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는 ‘현현’하는 존재이다. 그의 현현에는 호소와 명령이 들어있다. 그것은 타자의 타자다움의 절대성이 권위요, 가치요, 존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학습자가 가진 장애의 종류, 원인, 특성을 인간의 보편성 속에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규준’이나 ‘표준’에 맞추어 판별(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의미부여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대로 인정받고 그의 ‘다름’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대로 나타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그의 다름은 그의 맘껏 하는 행동에서, 말투에서, 표정에서 나타나며, 그 속에는 학습자 자신이 어떤 규준이나 전문가의 지식에 의해 해석되어지거나 판단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위엄어린 명령과 호소가 있다. 교사는 이 명령과 호소를 교사 자신이 가진 이기적 자아로 받아들이지 말고 교사가 가진 ‘윤리적 자아’ 속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그렇게 할 때, 성공적인 교육은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습자를 교사의 동일적 자아로 환원한 경우, 학습자를 고통하거나 편견어린 판단으로 학습자의 문을 닫게 한다. 그리고 교사가 이기적인 자아로 학습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억누를 경우, 학습자에게 정서적 피해를 가져다주어 학습자의 반발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논자는 교사가 이 두 가지 경우의 실수를 모두 다 범할 확률이 크다고 보고, 그로인해 학습자가 행동에 문제를 보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며 학습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학업성과가 저조해지는 원인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은 억측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타자인 학습자는 그 어떤 서술이나 수식이 요구되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존재여야 한다.

타자인 학습자는 교사를 지목하고 그에게 몸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이고 부족한 것을 요구하고 호소하며 그것을 들어주기를 명령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들어 줄 수 있는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 자신을 실현하는 것,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교육성과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학습자는 교사가 자신의 윤리성을 각성시키고 활동하도록,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해체하여 윤리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나 자신과 타자의 독립적인 공존을 실현케 하도록 하는, 교사에게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타자성은 타자가 타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외재성이라고 하겠다. 타자는 자아적 동일시나 자아로의 환원 속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만 보아 그 안에서 존재의 가치성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몸적인 인간으로 강조된다. 몸을 가진 인간은 세계를 파악할 능력이 있고 자신의 인식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함을 가진다. 이러한 성격의 타자는 나의 인식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되어 삼아지는 존재가 아니

고 내 앞에 그저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는 ‘현현’하는 존재요, 호소하는 존재, 약한 존재이다. 부자유 풍요로운 나와 구별되는 타자는 나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위엄을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 존재다. 타자는 그 어떤 서술이나 수식이 요구되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존재이다. 타자는 나를 지목하고 몸으로 나에게 타인의 호소를 들어주기를 명령하는 존재이다. 타자는 나의 윤리성을 각성시키고 활동하도록, 나의 자아의 해체를 윤리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존재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에 충만한 표현을 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윤리적인 태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행위 속에서 남겨진 흔적인 머리카락, 피, 오줌, 땀 등은 그의 ‘의미 있는’ 몸짓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습자가 분명 자신이 속한 세계를 향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나 교사와는 전혀 다른 타자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교사는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이란 학습자가 보여준 행동들이 자기의 속한 세계로부터 오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는 몸동작이라는 것,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행동으로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상황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 등이다. 그 뿐 아니라 그가 보여 준 행동들을 통해서 그는 교사와는 전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진 타자임을 인정하며, 그 타자는 교사 자신의 내면으로 환원되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교사의 개인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그 학습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자아의 힘을 빌려 학습자를 억지로 누르고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그러한 ‘타자’로서의 인정과 ‘능력 있음’의 간파가 학습자로 하여금 교사를 발견하고 그 스스로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능동성을 유발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새로운 윤리성을 정립한다.

교육현장에서 타자인 장애 학습자는 약자이고 교사는 강자인가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논자는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근거로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의 특수교육현장은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교육 목표 차원에서, 그리고 장애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구조화’된 교육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교육 방법론적 차원에서, 교사를 더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한다고 할 수 있다.

논자는 레비나스 윤리철학을 통하여 특수교사가 타자인 학습자에게 그러한 강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철저히 억제하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위) 행동에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지적인 지나친 결여로 주류사회의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지 못한 학습자의 격한 의사표현이 보이는 낯설고 생소한 행동을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수단으로 ‘정상화’ 하려고 하는 주도권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그 학습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대면 할 때, 그 학습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문성의 활용을 자제하고 학습자의 있는 그대로를, 교사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세계를 향하여 끊임 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세계를 향해 부르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는 존재이다(Fornfeld, 1996).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부르고 대답하면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발달시킨다. 학습자가 교사를 향한 부름을 만들어 내고 교사는 그 부름에 진실 되게, 끈기와 인내로 기다리면서 대답함으로써 학습자의 온전한 세계 탐구(교육)는 시작된다. 그러기에 학습자가 교사를 향해 자신을 열 때 까지 교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논자가 레비나스 윤리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가 철저히 학습자를 타자로 인정하고 그가 교사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교육의 출발이라고 하겠다.

교사는 학습자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열린 마음은 타자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그 바탕이 된다 하겠다. 특수교육 현장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 수없이 많은 실랑이와 혼란이 만들어진다고 하겠다. 이것은 자신의 전문성으로 ‘다름’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다름’을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철학적 사고를 근거로 ‘바꾸려고’ 하는 교사와, 자신의 속성이 적용하기에 무언가 많은 힘이 들고 한계가 보이는 이 ‘낯선’ 상황과 세계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학습자 사이에 벌어지는 ‘살아남으려는’ 존재적 전투 때문일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잠재워야 할 자는 교사라고 강조하고 싶다. 교사가 레비나스가 말한 윤리성을 확보한다면 교사와 학습자 간의 관계성은 매우 긴밀하고도 의미 있게 형성될 것이고 그러한 관계형성은 바로 교육할 준비를 완벽히 갖춘 상태라고도 할 것이다.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열림은 곧바로 학습자의 교사를 향한 열림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열림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그 결과로 얻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사는 타자윤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교사로 하여금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육 패러다임, 즉 인간의 가치를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찾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교육에 적용하고, 정상에서 이탈된 학습자를 일반적인 규범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학습자의 철저한 ‘있는 그대로’의 인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사는 자주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 학습자를 온전한 나와 다른 개체(타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교사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가르친다. 여기서 부딪히는 온전한 타자와의 갈등을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억류하고 억압하려

고 한다. 레비나스 윤리철학에서 논자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아인 윤리적인 자아로 재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타자윤리이며, 이것은 바로 교사 속에 내재된 윤리적 자아가 있기에 실천가능하다.

타자윤리는 자아의 환원으로 타자를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타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타자윤리는 타자의 갈구와 호소를 나의 안주와 거주의 문을 열고 내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내보이는 부적응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속에서 표현되는 교사를 향한 그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교사가 그들을 타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부담스런’ 행동을 그들의 호소로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응답함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윤리적 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교사의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학습자에게 호소하는 교사의 현현에 학습자가 적절하게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상호주관성의 구조를 이루는 관계를 낳게 할 수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토록 갈구하는 교육의 성과가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며, 그것은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의 강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타자윤리는 교사나 학습자 모두의 해체될 수밖에 없는 자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의 활성화로 각자의 주체성을 되찾게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레비나스의 타자윤리가 나온 배경과 그의 타자 개념과 타자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특수교사가 가질 윤리성을 교육성과 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장애를 가진 학습자는 타자이다. 특수교사는 학습자가 아니다. 교사는 자신이 아닌 타자의 속을 자신의 그것인 양 알 수 없다. 교사는 학습자의 키와 옷, 생김새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떤 모양인지 모른다. 학습자의 웃는 모습, 내는 소리, 나무토막 던지는 모습, 오줌 싸는 것, 친구의 머리카락이나 귀를 물어뜯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하는 모습, 과제 수행과정, 그것의 결과물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완전한 타자로서 교사와는 전혀 다른 속성과 심리를 가진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사가 학습자의 호소를 언어를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얼굴에 그 호소가 나타나고 몸을 가진 교사가 그것을 보고 듣고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를 존중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 마음을 열고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가 가진 전문지식이나 쌓여진 경험으로서가 아닌, 얼굴의 현현 속에 나타나는 그의 요구와 명령을 읽어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교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몸을 가진 교사는 학습자가 몸으로 말한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윤리성에 의한 것이다.

논자는 특수교사가 진정 ‘교사다운’ 교사가 될 수 있고, 특히 교육성과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학습대상이 타자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자를 자신의 이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한 전문성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적’으로 규명한다면, 타자의 존재를 타자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향유적 자아의 발현으로 학습자의 행동을 강제로 제어하고 요구한다면, 그 교사는 학습자의 열린 세계로 초대될 수 없을 것이다.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습자의 고유한 가치나 권위를 보지 못하는 것일 것이요, 타자인 학습자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들어 주려는 “애씀”을 하지 않을 것이요, 결국 타자의 본질적 바램을 간과하고 무시하여 자신의 의견과 욕구대로 실현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교사가 될 것이다. 그에게서 어떤 윤리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타이타닉호가 자신의 속력을 과시하다가 빙산을 피하지 못하여 좌초한 것처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역점에 두고 학습자를 대하는 교사의 ‘교육적 성취’를 여지없이 좌초시킬 가장 유력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교사가 타자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그 때는 교사는 학습자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학습자는 교사에게 자신을 열게 될 것이다. 학습자가 장애로 인한 억류를 풀고 자신의 발달과 성장을 질적으로 이루도록 스스로를 장려할 것이다. 교사가 윤리적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보편성과 이성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나온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억류를 풀고 ‘무장애’를 실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 철학에 근거한 윤리성을 가진 특수교사는 ‘교육성과’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어떠한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순항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윤리가 있는 특수교사는 학습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교사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문성만을 가지고 교육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인정을 가능하게 하여, 교사가 학습자의 진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에게 학습자는 마음을 열고 교사를 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논자는 이것이 현재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육’이라는 이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난항의 조건들을 순항의 그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참고문헌

- 강신주(2003).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서울.
- 강영안(1990). 레비나스 철학에서 주체성과 타자.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4, 243-263.
- 강영안 역(1997). 시간과 타자. Levinas(1979). E. Le Temps Et L'autre. 서울: 문예출판사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김성애(2002). Inclusion-Provocation for the 21st Century Or: Are we afraid of another "Trojanian Horse"? 토론원고.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두뇌한국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2002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탈산업사회와 특수교육". 151-155.
- 김성애 (2003). 구성주의와 탈산업사회교육. In: 김정권·김남순·김성애·김미숙·김향지·김혜경·한현민·조안나·이애현·민친식·윤광보·이유훈·신진숙·채미옥·이영철·류은경·조인수. 탈산업사회와 특수교육.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65-89.
- 김성애(2004). 중도 장애를 가진 아동이해에 대한 급진적 구성주의의 입장·한계·보충.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제5권 1호**, 51-68.
- 김성애(2005). 현상학적 입장에서 본 특수교육교사의 (중증)발달장애아 진단 및 교육적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제1호**, 147-176.
- 김성애, 홍은숙 공역(2004). **특수교육심리학**. 서울: 양서원.
- 김병하(2002).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 대구대출판부, 대구.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 **대한간호학회지, Vol. 29, No. 6**, 1028-1220.
- 김연숙(1997). 레비나스의 타자성(alterity)의 윤리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37호, 12.
- 김연숙(2000a). 레비나스 타자윤리에서 "대면적 관계윤리"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125-141.
- 김연숙(2000b). 레비나스 타자윤리의 서진 유가적 이해. 유교사상연구, 537-568.
- 김연숙(2001).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제53집, 269-287.
- 김형효(1996). 메를로-퐁띠(Merleau-Ponty)의 철학에서 <살>의 존재와 의미, **프랑스학연구, vol. 1, No.0**. 203-, 프랑스문화학회.
- 김형효(1998). 메를로-퐁띠의 철학을 통해서 본 몸의 현대적 의미. **프랑스학연구, Vol. 3, No. 0**, 157-186.
- 민경석(1997). 무한성, 전체성, 그리고 연대성: 레비나스의 사상과 탈근대사회에서의 변증법적 이성의 역할. 철학연구, 1-22.
- 원승룡(1993). 현상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Vol. 32, No.0**, 395-426.
- 유혜령(1998). 교수매체 환경과 유아의 경험 양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Vol. 18, No. 1**, 131-153.
- 이기상(1985). M.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방법 - 「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현상학적분석의 세 단계. **정보 철학, Vol. 24. No.0**, 189-207.
- 이남인(1992). 선형적 현상학과 탈현대: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Vol. 31, NO.0**, 370-398.
- 이남인(2002).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18, No.0**, 13-175.
- 조광제(2003). **몸**.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최운진 (1993). 제도교육의 재조명: 푸코와 료파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 11호, 91-116.
- Bundschuh, K.(2002). *Heilpaedagogische Psychologie(3. Auflage)*. Basel: Reinhardt.
- Buber, M.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Eisenstadt, S. N.(1992). *Intersubjectivity and Cultural Creativi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ber, M., translated by Kaufmann, W.(1996). *I and Thou*. New York: A Touchstone Book.
- Cohen, R. A.(trans., 1985). *Ethics and Infinity*. from Levinas, E. Ethique et infini. Pittsberg:

- Duquesne University.
- Dreher, W.(1979). Ueberlegungen im Vorfeld einer sonderpaedagogischen Theoriebildung der Erziehung schwer geistigbehinderter Menschen. In: Hofmann, Th.(Hrsg.): Beitrage zur Geistigbehindertenpaedagogik. Rheinstetten. 198-212.
- Dreher, W.(1996). *Denkspuren*. Aachen: Mainz Verlag.
- Fornefeld, B.(1995). *"Elementare Beziehung" und Selbstverwirklichung geistig Schwerstbehinderter in sozialer Integration*. Aachen: Mainz Verlag.
- Foucault, M. (1980): *Power and Knowledge*. Pantheon Books, New York.
- Furrow, D.(1995). Ethic without Limit, in: *Against Theory*, New York. 146-148.
- Husserl, E., 이종훈 역(1997). *Die Krisis der europa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trale Phaenomenologie*. 서울: 한길사.
- Kleinbach, K.(1994). *Zur ethischen Begruebdung einer Praxis der Geistigbehindertenpaedagogik*. Bad Heilbrun: Klinkhardt.
- Levinas, E., translated by L. Wenzler(1989). *Humanismus des anderen Mensche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Merleau-Ponty, translated by C. Smith(1999).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 Pfeffer, W.(1987). Fremdverstehen auf praereflexiver Enebe erzieherischer Interaktion, in: Eberwein, H. (Hrsg.): *Fremdverstehen sozialer Randgruppen*, 1987, 104-123. Berlin: Marhold.
- Pfeffer, W.(1988). *Foerderung schwer geistig Behinderter*. Wuezburg: Bentheim.
- Scharlemann, R. P.(ed., 1990). *Theology at the End of the Century: A Dialogue on the Postmoder*. 1-7.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A Study on the Ethic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through the Levinas' Ethic

Kim, Sung Ae

Ph.D. Daegu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One of major matter of concerns in special education might be outcomes of learners with disabilities. For this matter, various studie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lation of curricula and teaching strategies.

This study implements considering Levinas' Ethic under the assumption that teacher's ethic could play a important role as a short-cut for learners' achievement with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background of Levinas; philosophy and what is the meaning for the teacher's ethic towards learner with disabilities?

Second, which way could show Levinas' ethic some "right way", in order that teacher could work his successful lesson with his learners in the class.

The author stresses that Levinas' ethic would have implications of many meanings for the reasons why teacher should have ethics for learner's outcomes.

Key words : Ethic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Levinas' Ethic